



황둔 성당

설립 일. 2017. 8. 17.
주보성인. 예수 성심

2024년 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1독서

다니 12,1-3

제2독서

히브 10,11-14.18

복 음

마르 13,24-32



들빛바로가기

www.wj catholic.or.kr

화답송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뿔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종말의 모습



박 홍 준 요아킴 신부 / 관설동 본당 주임

오늘 복음은 종말의 모습을 들려주신다. 큰 환난과 함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종말은 말 그대로 두려운 재앙처럼 보인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문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가리켜준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지만 빛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더 밝아지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만 당혹스럽게도 빛으로 나아갈수록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더욱 드러나고, 더 넘어지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면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들은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이 '정화'되는 과정이기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그저 나의 어두움과 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합리화하기 보다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두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할 것이다. 더 빛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 어두움, 실패, 약점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갖가지 방식으로 그 불청객들을 외면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실천하려는 '기특한 그리스

도인'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에 지금 그 미움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동안 나의 좁은 마음과 자기에, 사랑의 결핍을 가져온 나의 죄 등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어두움을 통해 그 비참한 나의 현주소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는 은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알려주는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꼴을 단번에 담기에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악습과 오물들로 채워왔던 나의 더러운 그릇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엎드려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복음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과 같이 나 자신을 흔드는 두려움을 준다.

그럼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냄새 배인 나의 그릇을 말끔히 씻으시어 당신의 소중한 꼴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다는 믿음에 있지 않을까.

또한 오늘 우리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건강할 때 자선하는 것은 금이요. 병이 났을 때 하는 자선은 은이요. 죽은 뒤에 하는 자선은 납이다”(유대인 속담)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황둔 성당!!



황둔 성당

황둔에서 언제부터 교우들이 살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용소막 성당 본당사에 보면 1962년에 황둔 장터에 대지 70평, 초가 2동을 매입. 이를 수리하여 황둔 공소 강당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당은 장터 길가에 위치해 있어 이를 처분하고, 현재의 성당 자리는 1989년 김차순 로사 자매님이 기증한 대지 77평에 강당(26.9평)을 건립하여 1990년 11월 18일에 첫 미사를 봉헌하였고, 1991년 4월 5일에 감지석 야고보 주교님에 의해 축복되었습니다. 훗날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을 내달아 증축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소시절 교우들은 본당 승격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드디어 2017년 8월 17일 예수 성심을 주보 성인으로 하여 용소막 성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신부님으로 남궁 민 루카 신부님이 부임하셔서 본당의 기틀을 닦아주셨고, 2대 신부님으로 부임하신 최영균 그레고리오 신부님께서는 비만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어 성당 안이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성당 주방에 있는 큰 통들을 가져다 빗물받이로 써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지붕공사를 새로 하여 비 새는 것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앞쪽을 새롭게 꾸몄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를 그리스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3대 신부님으로 부임하신 황보 위 요셉 신부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성당 분위기를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성당 주변을 새롭게 조경 작업을 하였고, 오랜 기간 마찰을 빚었던 성당 옆집과 관계를 정리하고 경계에 돌담을 쌓았습니다.

신부님과 신자들이 뜻을 모아 제의방 리모델링과 성당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하였고, 성당 출입문과 중문, 성당 의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에 자체적으로 축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4대 신부님이신 성원경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부임하셔서 사목하고 계십니다.



▲ 성당 내부



▲ 축복식

매월 둘째 주일은 미사 후에 연령회 연도를 하는 날인데, 연도 후에 전 신자가 교육관에 모여 식사를 하는 전통이 공소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달의 축일자 분들께 축하 선물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에 있는 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과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도왔습니다. 올봄에는 진천 베타성지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 얼마 전에는 야외미사도 하였습니다.



▲ 성지순례



▲ 야외미사

황둔 성당은 주일 미사에 60명 가량 참석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와 작은 인원의 신자들이지만, 그 속에 일당백 하는 봉사자들이 있고,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황둔 성당에 한번 다녀오세요.

직장 일로 주일 미사 참례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교회는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식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 예식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제74조 3-4항).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이행됩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그러나 이것은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이지, ‘주일 미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송이나 평일 미사, 공소 예식,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이 결코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찬례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석하여도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만, 전례 시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시기에 따른 기도문, 독서와 복음이 낭독되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일 미사 참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하여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화문 바로가기 ▲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집회 21,5 참조)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 다른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 벤 시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구하는 여정에서 계시의 기본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실’ 정도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목숨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와 관련된 그릇된 정책으로 얼마나 점점 더 많은 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등 돌릴 수 없습니다.

기도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자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목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가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의 기쁨』, 200항).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한시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심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침묵에는, 하느님과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규 거행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 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 생활자, 남녀 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 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 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만남과 곁에 있어 줌으로 드러나는 애덕 안에서 확인됩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덕도 기도가 없으면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자선 행위에 불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삶을 바친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성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을 바로 기도에서 길어 올렸음을 계속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줍니다.”

성년을 향한 여정에서, 저는 모두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잠시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작은 관심과 미소, 다정한 손길,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넵시다. 이러한 몸짓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흔히 드러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구장 동정

11월 17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성내동 성당)
20일(수)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정기 이사회
여성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 미사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23일(토) 가톨릭사진가회 전시회 개막미사
24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단구동 성당)



축하드립니다

영명일 11월 19일(화)
여진천 폰시아노 신부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2박 3일 피정 일시 및 강사진

▷ 12월 20일(금)~22일(주일) : 이성호 리노 주교(수원교구)

☀️ 천주교 원주교구 순례길 「님의 길」 가을 순례 프로그램

✓ 짧은 순례 구간간의 반만 걸어요.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날짜	길 이름	이번에 순례하는 구간(거리, 시간)
11월 30	서지고개길(서지마을 ~ 귀래공소)	서지마을 ~ 사기막(10.3Km, 2:30)
12월 3	최 비르지타 순교길(대안리공소 ~ 원동성당)	대안리공소 ~ 무실동 성당(10Km, 2:30)

✓ 순례 피정 순례영성을 만나는 무료피정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일시 : 11월 20일(수) 16시 ~ 21일(목) 13시
장소 : 횡성 성 도미니코 수녀원
주제 :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강사 : 이우갑 베드로 신부(원주교구 순례담당)

✓ 참가 신청

- ▶ 전화(문자) 신청 : 010-5719-3217
서지마을 033-745-3217
카톡 : 번호 저장 후 서지마을 카톡 등록 후 신청
- ▶ 홈페이지 신청
<https://sunraegil.seoji.net/board/pilgrimage2>



교구 알림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지원반 모임

때 : 11월 17일(주일) 11시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교구 1일피정

때 : 11월 19일(화) 10시~15시
곳 : 배론성지
주제 : "하느님의 은총"
강사 : 신우식 토마스 신부(문화영성연구소 소장)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1월 19일(화) 가톨릭센터, 20시
대면 : 11월 19일(화) 태강동 성당, 10시
20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21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중1~고2 예비신학생 모임

때 : 11월 24일(주일) 10시~15시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본당 회계 교육

때 : 11월 27일(수) 14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202호
교육 : 예산편성지침서, 본당회계처리지침서
대상자 : 본당 회계담당자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 컵
신청 : 11월 20일(수)까지
문의 : 관리국 경리부 033-765-4222

청년 대림피정

때 : 12월 1일(주일) 15시~18시(14:30 접수)
곳 : 무실동 성당
주제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내용 : 희망에 관한 강의 및 작업, 나눔, 찬양, 미사

피정지도 : 성바오로딸수도회

대상 : 만 20세 이상 청년 누구나
준비물 : 미사준비, 텀블러
신청 : 11월 24(주일)까지 F. 033-765-4223
E-mail : wjch-02@hanmail.net
*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6-4228

복음화사목국 교리신학원 재학생, 졸업생 만남의 날

때 : 12월 14일(토) 9시30분~15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본당 교리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개인 컵
신청 : 12월 2일(월)까지 F. 033-765-4223
- 본당 사무실에서 취합 일괄 신청
- 개별 신청은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
* 점심 식사 제공,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안내

2/12 3대성모님발원지 12일 495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
2/19 대한항공 이태리 일주 9일 419
2/24,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
3/0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엘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동혈압, 동맥경화검사
T. 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른한의원

바른치료 · 빠른치료
유경철(요셉) 신장숙(루시아)
T.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3층 다동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T.02-757-3343
명동성당앞 태흥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T.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순(마리안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3 발칸반도(매주교례) 465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3/28 스페인 남부, 포르투갈 485만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T.02-2281-9070/www.cttour.org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미사·피정·연수

청년성서 하반기 재교육 연수

때 : 11월 17일(주일) 11시~16시(10시30분 접수)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대상 : 청년성서 하느님 가족, 관심있는 청년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미사

때 : 11월 17일(주일) 18시30분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가톨릭 의사회 월례미사

때 : 11월 18일(월) 19시 / 곳 :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여성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

때 : 11월 20일(수) 10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본당 성모회 및 충구역 임원

내용 : 특강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예산

문의 : 010-7202-2474, 010-5376-5924

가톨릭 법조인회 월례미사

때 : 11월 20일(수) 18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가톨릭 간호사회 월례미사

때 : 11월 21일(목) 18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로사리오회

때 : 11월 21일(목) 13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10-5360-6327

원주 ME 제153차 주말

때 : 11월 22일(금) 19시~24일(주일) 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인원 : 선착순 20부부(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010-4410-4217, 010-8591-4217

연령회연합회 하반기 일일교육

때 : 11월 23일(토) 9시30분~13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분당 연령회장 및 임원

강의 : 이형호 베드로 신부(복음화사목국장)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회장 010-9542-9000

성음악교육원 가을학기 종강미사

때 : 11월 23일(토) 16시15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성음악교육원 033-764-9118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11월 24일(주일) 12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II

: 12.20(금)~22(일)

문의 :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평정

회비 : 2만원 (청소년 무료)

때 : 11월 30일(토) 14시~12월 1일(주일) 14시

강사 : 김완식 요셉, 박창환 가말로 신부

곳 : 초정성령회관 043-213-9103

셔틀버스 : 조치원역 12:20분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건너편 12:40분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때 : 11월 24일(주일) 14시 / 곳 : 춘천 윤교동 성당

문의 : 루카 수녀 010-9353-1773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대상 : 40세미만 미혼여성으로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 0507-1306-1505 / 카카오톡 채널

채용·모집·기타

가톨릭 원주도서관 봉사자 모집

인원 : 1~2명 / 시간 : 매주 월요일 9시30분~12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2276-6337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 운전기사회는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 064-758-6476, 010-4566-6476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담담 신부 010-3645-9028

『원주교구 60년사』 편찬 협조 요청

교구 설정 60주년(2025. 3. 22.)을 맞이하여

『원주교구 60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산하 기관·단체에서는 요청드린 기록 자

료를 보완하셔서 11월 30일까지 편찬위원회에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19회 가톨릭 원주교구 사진가회

정기전시회

기간 : 11월 23일(토) 14시~27일(수) 17시

곳 : 가톨릭센터 지하전시실

오픈미사 : 11월 23일(토) 14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집전)

※ 님의 길 순례사진 병행 전시

회원모집 및 문의 : 010-8790-9917

축복된 성물의 거래에 대한 주의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회가 금하는 일입니다.(교회법 제1171조 참조 :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축복된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사사로이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성물들을 문화영성연구소(배론성지, 043-646-452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라), 김길경(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입당동) 033-531-7887(동해 묵호동)	한일중기 불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옥(미리암) 불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콜베),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앵글산반/창고공장파트너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황성군청앞)	파리바게뜨 무실세영점 단팻빵, 크림빵, 케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테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